



산림욕하는 복합문화센터, 유중아트센터

11

갤러리와 공연장, 아티스트들의 레지던스, 카페까지 두루 갖춘 복합문화공간 유중아트센터가 방배동에 오픈했다. 도시의 산림욕장 같은 쾌적함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티스트와 관객을 잇는 새로운 장을 펼쳐 보이려는 젊은 CEO 정승우를 만나보았다.

Q 문화공간 외에 아티스트 레지던스와 연습실까지, 소규모일 거라 짐작했는데 의외로 규모와 내실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소형이더라도 아티스트들이 인정할 수 있는, 풀 옵션을 갖춘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인지 다들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라고 묻는다. 두 번째는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다.

Q 방배동에 이런 공간이 생겼다는 게 신선하다. 지난 연말에는 유키 구라모토의 공연연습이 있었다고. 아트홀은 예술의전당 앞, 갤러리를 하려면 청담동이나 인사동으로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이 정도 되는 퀄리티의 공간을 운영하기가 힘들다.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곳에서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만들어서 아티스트들에게도 인정받고 관객들도 이곳으로 오게 만들자 싶었다. 그리고 곧 이 거리가 서초문화거리로 조성될 예정이다.

Q 사람들이 오게 만들 마케팅 전략이 있다면. 전략은 따로 없다. 최고의 연주공간, 최고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니까. 예를 들어 아트홀 방음벽 나무 한 단까지 목수와 상의해서 일일이 짚을 정도로 최고의 퀄리티를 추구했다. 내실에 충실하면 진가를 알아줄 거라 자부한다.

Q 1층 카페에도 미술작품들이 전시돼 있더라.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걸고 있다. 카페라는 공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관람을 하게 된다. 신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판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이런 작품이 있다는 것을 노출할 수 있는 기회니까.

Q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가 이 피톤치드 향이다. 1층 카페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에서 풍겨나오는 것 같다. 산림욕이 특별한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도심 속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미술품을 관람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산림욕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산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100% 액상기화 장치를 도입했는데, 세계 최초라고 자부한다.

Q 이곳에서 실현하고 싶은 꿈은 뭔가. 아티스트들이 이곳을 거쳐 커다란 무대로 향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 작지만 명가 같은 느낌을 주는 곳. 에디터 천승명

